

#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성환(고용노동연수원 박사)\*

복경수(단국대학교 박사과정)\*\*

박재춘(단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국 문 요 약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으로 도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업가정신의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창업보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들이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의 고취를 통해서 취업과 더불어 창업으로의 진로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가 필요하다. 이때 창업의지의 고취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비창업자의 개인심리적 특성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내재적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적 성인교육기법의 적용, 창업교육전문가의 육성을 통한 창업교육의 전문화,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으로서의 창업의 일상화 및 지원 제도가 대학교육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창업교육

## 1. 서론

실업극복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맞춤사업, 특화 예비기술창업자육성 등 예비창업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 특히 대학생들은 창업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으로 도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업가정신의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 창업현실에서 매

우 큰 용기이며, 인생의 경력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성공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행동)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창업에 몰입된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내적동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으로는 크게 환경요인, 조직요인 및 개인요인 등으로 분류되며(Choi & Jeong, 2008), 그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위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확신, 성취요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지만, 내재적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자기결정성의 동기요인

\* 제1저자: 고용노동연수원 박사, E-mail: ksh0828@hanmail.net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E-mail: bestbok@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E-mail: kplof1@hanmail.net

· 투고일: 2015-08-18 · 수정일: 2015-10-11 · 게재확정일: 2015-10-28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자기결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적용하여, 하위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주는 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보유한 자원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기회 추구적이고, 이러한 자원의 제약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Lee, 2008)을 볼 때,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실제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Yoon, 2012b)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특성 중 내재적 동기요인인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으로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창업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요인이라는 주장(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Choi & Jeong, 2008)과 창업의지(Fayolle et al., 2006; Clark et al., 1984)에 미치는 직접효과 위주로 규명되어 왔다. 즉,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교육의 조절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인간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근간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실증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재적 동기이론의 하나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Deci(1975)의 인지평가이론에 유기적 통합이론을 보완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시작된 내재동기이론이며, 동기, 정서, 성격과 관련된 거대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Kim & Yoon, 2012).

Ryan & Deci(2000)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자율성(autonomy) 또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ew, 2009). 즉, 동기는 행동의 첫 출발점이자 방향의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활력과 조절의 기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높은 자기결정성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될수록 탁월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발휘되므로(Kim, &

Yoon, 2012),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있어서도 자기결정성이 강화될수록 창업에서의 흥미를 높이고, 성취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Ryan & Deci(2000)는 행동의 원인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며, 이러한 자기결정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 기본 심리욕구들의 핵심요소를 살펴보면(Lee & Kim, 2008), 첫째,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둘째, 유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능하고 자 하는 욕구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

Deci & Ryan(1985)는 동기수준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뉘는 것이 모호한 상황 하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외적 통제에서부터 내적인 자기결단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체계로 개념화 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Ryan & Deci, 2000). 이에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발휘되는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유능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세 가지 기본 욕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Ryan, 1982). 또한 Ryan & Deci(2000)는 관계성이 유능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통합적으로 내재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고 내재동기를 유지하는데 관계성에 대한 욕구 만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볼 때 자기결정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선택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 2.2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혁신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Chung, 2008).

Schumpeter(1934)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기업가는 기업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아닌 혁신가와 동일시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자로서 기업가를 강조하였고,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쇠퇴해 가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언급하며, 혁신성과 진취성을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Mises(1966)는 기업가는 시장의 경제적 기회를 기민성(alertness)을 가지고 발견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Kirzner(1973)는 기업가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가의 기회포착에 중점을 두기도

하였다(Chung, 2008). 또한 Hisrich & Brush(1986)는 기업가정신을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가치창조의 과정으로, Kao(1989)는 사업기회의 인지, 위험부담의 효과적 관리, 적절한 자원동원으로 가치창출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Gartner(1987)는 기업가정신이 뜻하는 바를 창업가, 혁신, 조직창조, 가치창출, 이윤추구, 성장성, 독특성, 창업경영자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균형잡힌 리더십을 기반으로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가지고 기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고·추론·행동방법으로 정의하며, 기업가정신의 핵심영역으로 기회, 기업가, 자원을 언급하였다. 기존의 전통적 고전경제이론에서 기업가는 분석의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스트리아 학파는 기업가를 단순히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초과이윤을 얻는 자가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역할을 통해 기업자원을 배치시키는 행동의 주체이자 균형에서 또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혁신하는 동태적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며 이를 위한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하였다(Ha, 2009).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속성은 보유한 자원에 구애받지 받지 않고 기회추구적이고, 이러한 자원의 제약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ee, 2008).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리더십, 책임감 등을 들 수 있다(Nam, Kim, & Bang, 2014). 선행연구를 볼 때,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통찰하여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여 이윤을 극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환경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요인 중에서 환경특성과 조직특성은 외부요인으로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반면,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 조절이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Choi & Jeong, 2008). 특히, Pickle & Abrahamson(1990)은 추진력, 정신력, 인간관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개인적 역량을 기업가정신의 개인적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 Gartner(1985)는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선호도 및 직무만족 등의 개인특성요인을, Hornsby et al.(1993)은 모험지향적 경향, 자율성에 대한 열망, 성취욕구, 목표지향성 및 통제위치를 기업가정신의 개인특성요인으로 주장하였다.

### 2.3 창업의지

창업은 사업초기에 경영자원을 확보하고 결합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가치 있는 조직을 창조하는(creation) 것이다(Vesper, 1990).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불확실성하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Ries, 2011).

창업은 예비창업자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Cheong & Ha, 2012). 창업의지란 “즉각적인 창업행동이라기보다는 예비창업자가 향후 창업할

가능성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Cheong & Ha, 2012). 즉, 의지(intention)는 특정 행동의 실행여부를 정확하게 예측 및 설명하는 변수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을 준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따라서 창업의지는 향후 창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Kim & Lee, 2014). 창업의지는 기회를 결정하는 욕망, 실현가능성, 성향의 인식에서 비롯되어진다(Lee et al., 2011).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이 있으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업의지라 할 수 있다(Kim, 2012).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Yoon, 2004). 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업요인(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hoi, 2012). 먼저,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내재적 통제 위치, 위험추구 성향, 자기확신, 성취욕구, 모호성에 대한 내성, 혁신성 등이 실증(Bygrave, 1989; Robinson et al., 1991)되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세력, 창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문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4 창업교육

창업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 아젠다 중 하나이다(Mitra & Matlay, 2004).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해주고, 창업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전달해 주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내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을 이끌어 내야 한다(Jeong & Bahn, 2008). 그러나 Choi & Jeong(2008)은 국내 창업교육이 창업과 관련된 실무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의 함양에 관한 내용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Timmons(1994)는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감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동기부여와 올바른 창업정신을 제고시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신감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인 창업가의 내재적 동기요인인 자기결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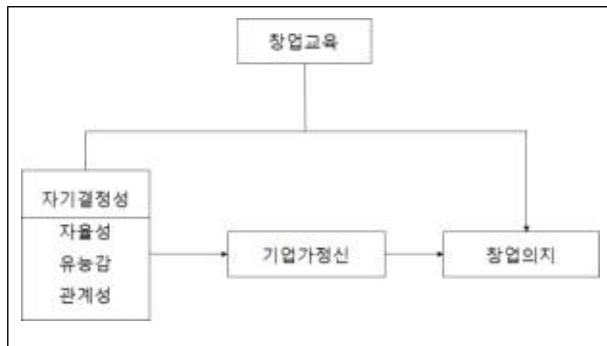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촉진(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시킨다. 예를 들어, 창업교육 횟수와 창업교육 경험여부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주며(Jung, 2012; Solesvik et al.,

2014), 창업교육의 교육내용과 자기학습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Jeong & Bahn, 2008).

### III.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자기결정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변인으로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특히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검증을 통해, 창업동기를 통한 내적 프로세스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결과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가설 설정

##### 3.2.1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간의 관계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이며, 인생의 경력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창업성공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행동)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심리와 내재적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Yoo, 2013). 자기결정성 동기는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의 가치나 신념 등을 내면화하고 통합하는 행위(Ryan & Connell, 1989; Ryan & Deci, 2000)이다. 특히 Fayolle(2005), Kickul et al.(2008) 및 Bagraim et al.(2008) 등은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유능감과 유사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sup>1)</sup>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im(2008) 역시 유능감과 유사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선행변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개인특성은 정서적, 기술

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의 존재이다(Jeong & Bahn, 2008).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은 창업에 있어서 지원과 동기부여의 역할(Manning et al., 1989)을 하며,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밑거름 역할(Kim, 2009)을 한다고 하였다(Yoon, 2012b). 따라서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인 자기결정성의 관계성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요인으로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Ryan & Deci(2000)은 외재적 동기이전에 내재적 동기로 인한 창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서 자기결정성이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심리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의지는 기회를 결정하는 욕망, 실현가능성, 성향의 인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Lee et al., 2011), 기회를 결정하려는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와도 밀접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hang & Choi(2013)는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유사한 직무자율성이 기업가정신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예비창업자의 자율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예비창업자의 유능감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예비창업자의 관계성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예비창업자의 자율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예비창업자의 유능감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예비창업자의 관계성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Shapero & Sokol, 1982; Veciana et al., 2005; Lee & Bian, 2011; Yoon, 2012b; Shin & Ahn, 2015)들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특

1)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정도를 의미하며(Bandura, 1977), 자기결정성 동기(유능감)와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Moon, 2013).

히, Lee & Bian(2011)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며, 기업가정신의 요인 중에서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Shin & Ahn(2015) 역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다. 그러나 Yoon(2012b)은 자기결정성과 유사한 창업동기요인 중 성취요구, 인적네트워크 및 사회적 인식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Shin & Ahn(2015)은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기업가정신이 매개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Lee & Yoo(2012)는 학습동기와 의지와 컨설턴트의 역량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정신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Oh(2014)는 기업가정신이 객관적 창업환경·주관적 창업인식·사업실패 부담감과 창업의지 사이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와, Shin & Ahn(2015), Lee & Yoo(2012) 및 Yoon(2012b), Oh(2014)의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4-1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4-2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4-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관계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2.4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창업자의 개인특성은 교육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요인이라는 주장(Choi & Jeong, 2008; Ertuna & Gural, 2011)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는 창업교육의 직접적인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Kim(2014)은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심리적 성장환경과 창업교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Crant(1996) 역시 창업의지는 교육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 또한 높다고 주장하였다. Clark et al.(1984)은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촉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창업관련과목 수강

후 창업계획의 수립에 들어갔거나 창업을 고려하게 된 학생이 전체 학생의 36.9%를 차지했고, 창업에 대해 고려해 보고 있는 학생이 42.2%로 나타났다. 또한 Solesvik et al.(2014)은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참여가 창업의지의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처럼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Fayolle et al., 2006)이고 긍정적인 관계(Clark et al., 1984)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들(Wu & Wu, 2008; Rodrigues et al., 2012)은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Oosterbeek et al., 2010)도 존재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성취요구,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교육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다(Jo, 2014). 특히, Solesvik et al.(2014)은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주장하면서, 문화적 요인과 창업의지와와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실증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미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로서 창업교육을 통해서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창업교육을 수강하게 될 것이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성과 창업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즉,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 5-1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 5-2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 5-3 관계성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을 것이다.

**IV. 실증결과분석**

**4.1 표본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창업대학원(석사과정)과 다양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에 재학 중인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창업교육의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기 위해, 2015년 1학기 정규강좌에 개설된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인 대학생 484명을 표집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91부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 및 오류설문지 7부를 제외한 484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4.2 기초통계량

설문에 응답한 예비창업자 484명의 특성은 남학생이 292명(60.6%)이며, 나이는 20세 이하가 65명(13.5%), 21-24세가 250명(51.9%), 25세 이상이 167명(34.6%)이었다. 특히, 창업에 관한 수업을 수강한 횟수는 1강좌를 수강한 학생이 143명(29.7%), 2강좌 105명(21.8%), 3강좌 이상 34명(7.1%), 수강경험이 없는 학생이 199명(41.4%)로 나타났다.

## 4.3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자기결정성은 Ryan & Deci의 기본심리 욕구 척도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Lee & Kim(200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등 3개 하위차원으로 구분되며, 하위요소별로 6개 항목, 총 18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정도(자율성)’, ‘매우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유능감)’, ‘주변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관계성)’ 등이다.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와 Zahra(1991) 등이 제시한 3가지 차원(위험추구, 혁신성, 진취성)을 사용한 Yoon(2012a)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위험추구, 혁신성, 진취성을 포함한 9개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정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성 정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측정도구로는 Shin(2013), Kim(2011), Ha(2009), Yoon(2004)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5개의 설문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고 싶은 정도’, ‘장래에 창업을 할 분명한 계획을 지닌 정도’ 등이다.

## 4.4 신뢰도와 타당성분석

### 4.4.1 신뢰도분석

변수의 신뢰성은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내적 일치성은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 <표 1>,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자율성 .786, 유능감 .856, 관계성 .866), 기업가정신(진취성 .621, 혁신성 .740, 위험추구 .756), 창업의지(.909) 등으로 신뢰도를 충족하였다.

<표 1>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항목수	α계수
자기결정성	자율성	.786
	유능감	.856
	관계성	.866
기업가정신	진취성	.621
	혁신성	.740
	위험추구	.756
창업의지	5	.909

### 4.4.2 타당성분석

본 연구의 활용척도 중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과 배리맥스 방식에 의한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으로 정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정도를 나타내 주는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서 자율성 2개 항목(4, 5)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자기결정성의 2차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61.393%를 보이며, KMO 값이 .896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3475.738(df=120,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2> 자기결정성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적재치	요인			
		1	2	3	
자기결정성	자율성	자율1	.589	.757	
		자율2	.715	.823	
		자율3	.689	.803	
		자율6	.469	.645	
	유능감	유능1	.675		.803
		유능2	.525		.676
		유능3	.601		.732
		유능4	.644		.738
		유능5	.464		.646
		유능6	.619		.771
	관계성	관계1	.512		.560
		관계2	.547		.676
		관계3	.686		.801
		관계4	.731		.820
		관계5	.741		.807
		관계6	.614		.747
	아이겐 값		2.544	3.712	3.567
	분산(%)		15.897	23.200	22.296
누적분산(%)		15.897	39.097	61.393	

1차 요인분석에서 기업가정신 진취성 1개 항목이 요인적재치가 0.4이하로 제거한 후,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2차 요인분석 결과<표 3>,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72.029%를 보이며, KMO 값이 .89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통계값이 3162.079(df=78, p=.000)으로 적합하였다.

2) 창업에 관한 수업은 특강(24시간)이나 세미나(1일-4일) 아닌 대학에서 학기 중에 공식적으로 개설되는 2-3학점의 교양 및 전공과목을 의미함.

<표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 요인분석결과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1	2	3	4
기업가정신	진취성	진취1	.783	.806		
		진취2	.763	.714		
	혁신성	혁신1	.753		.794	
		혁신2	.554		.502	
	위험추구	혁신3	.717		.760	
		위험4	.714			.780
	위험5	.736			.781	
	위험6	.646			.709	
창업의지	의지1	.786			.839	
	의지2	.764			.839	
	의지3	.799			.863	
	의지4	.712			.790	
	의지5	.639			.750	
아이겐 값			1.532	1.984	2.161	3.687
분산(%)			11.781	15.261	16.623	28.364
누적분산(%)			11.781	27.042	43.665	72.029

### 4.5 단일 응답자 편차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 대상으로부터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단일 응답자 편차(single respondent bias)의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이러한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이 제시한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총 7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이 전체 변량의 13.725%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Bartlett 검증(유의수준<.000)을 통해서도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KMO측정치(0.910)도 최저기준치(0.5)를 상회하여 전체 변수에 대한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단일 응답자 편차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4.6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표 4>,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은 모두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업가정신 역시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업교육은 자율성과 창업의지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1	2	3	4	5	6
자율성	1					
유능감	.365*	1				
관계성	.303*	.520*	1			
기업가정신	.324*	.565*	.366*	1		
창업의지	.172*	.201*	.168*	.525*	1	
창업교육	.097**	.062	.025	.122*	.153*	1
평균	4.4473	4.1972	4.7030	3.3527	3.0567	.0000
편차	.86696	.79152	.75567	.62533	.98344	.49301

\* 0.01,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4.7 가설검증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표 5>, 자율성과 유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 가설 2-1과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그러나 관계성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3과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창업의지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매개검증결과<표 5>, Baron & Kenny(1986)의 첫째 조건은 모형 2에서 자율성과 유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조건 2에서도 자율성과 유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조건 3은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할 때, 독립변수(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와 매개변수(기업가정신)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형 2에 비해 작으면 부분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역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유능감은 회귀계수가 작아졌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기업가정신은 완전매개역할을, 유능감에 있어서는 부분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표 5>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1 (기업가정신)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모형4 (창업의지)
(상수)	1.049	1.442	.109	.368
자율성	.125*	.100**		.019
유능감	.477*	.126**		-.183*
관계성	.085	.073		.021
기업가정신			.559*	.648*
F2	.339*	.054*	.312*	.333*

\* p < .01. \*\* p < .05

Sobel test로 계수 검증결과<표 6>, .01 유의도 하에서 z값이 각각 3.04, 8.53으로 1.96보다 큰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가설 4-1과 4-2는 지지되었다. 기업가정신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는 0.079(0.090\*0.879)이며, 직접효과(0.113)과 간접효과(0.079)를 더한 총 효과는 0.192이었다. 또한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는 0.332(0.378\*0.879)이며, 직접효과(0.157)과 간접효과(0.332)를 더한 총 효과는 0.489이었다.

<표 6> Sobel test 결과

구분	A	B	SEa	SEb	Z
자율성	.090	.879	.029	.060	3.04*
유능감	.378	.879	.036	.060	8.53*

\* p < .01, 비표준화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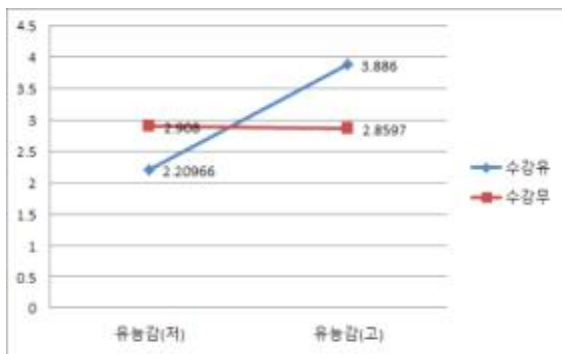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표 7>, 모형 2와 모형 3에서 R2의 변화량(0.027, p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교육 수강여부가 조절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1 (창업의지)	모형2 (창업의지)	모형3 (창업의지)
(상수)	1.442	1.487	1.538
자율성(A)	.100**	.090***	.082***
유능감(B)	.126**	.121**	.116**
관계성(C)	.073	.075	.076
수강유무(D)		.133*	-.044
A*D			.182
B*D			.119**
C*D			.049
R2	.054*	.071	.099
ΔR2	-	.017*	.027*

\* p < .01. \*\* p < .05, \*\*\* p < .1

조절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Aiken & West(1991)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예비창업자들의 높은 유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창업교육을 1강좌 이상 수강한 집단(B=402, p<.01)이 전혀 수강하지 않은 집단(B=.010, n.s.)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2은 지지되었다.



<그림 2> 창업교육 수강여부의 조절효과(유능감)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n(2004)과 Lee et al.(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 중 관계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은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관계성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Chang & Choi(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기업의 근로자처럼 자율성과 유능감이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유능감을 지원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핵심도구라는 주장(Zhao et al., 2005; Raposo et al., 2008)처럼,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들의 심리적 특성(자기결정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육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즉, 예비창업자에게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신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창업교육과 더불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Knowles(1980)의 안드라고지적(자기주도적, 경험중심, 문제해결, 학습준비성은 발달과업과 관련)의 창업교육활동이 절실히 보인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개인심리적 특성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교육의 자기주도적 성인교육기법의 적용, 창업교육전문의의 육성을 통한 창업교육의 전문화 및 직업교육 또는 진로교육으로서의 창업교육의 일상화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Lee & Bian(2011), Shin & Ahn(20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넷째, 기업가정신은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의 자기결정성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창업의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창업의지의 고취를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즉,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창업교육을 수강한 예비창업자집단은 자기결정성(유능감)과 창업의지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창업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집단은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Kim(2014)은 대학생의 창업의지가 심리적 성장환경과 창업교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점을 볼 때,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교육으로 내재적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업교육이 자기결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창업교육이 평생교육 및 성인의 학습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이어 진로 또는



직업교육의 차원으로서 창업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인학습자이자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그들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주고, 성인학습기법을 통해 대학생들의 경험학습 기회를 제공(Ries의 린스타트업에서의 “만들기-측정-학습”도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음)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성찰을 제공하고, 그들이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에 부정적인 기존의 사고와 가정들을 바꿔주는 전환학습의 기회가 선행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성인교육이 사회문화적, 사회구조적,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포괄적으로 교육기회와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에(Merriam, 2007),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원되어 창업생태계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실시한 바, 추후에 종단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자기결정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의 영향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까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수업 수강유무로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창업교육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못했다. 물론 본 연구의 창업교육은 기존연구와 달리, 일회성 교육(특강 등)이 아닌 대학에서 한 학기 정규강좌로 개설된 강좌를 대상으로 수강유무를 판단한 점에서 차별화는 보이지만, 향후 연구에서 창업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전후 비교 연구, 사례연구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

Aiken, L. S., West, S. G., & Reno, R. R.(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84(2), 191-215.

Bagrami, J. J., & Gird, A.(2008),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st final-year university students, *S. Afr. J. Psychol*, 38(4), 711-724.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ygrave, W. D.(1989), The entrepreneurship paradigm (I): a philosophical look at its research methodologi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7-26.

Chang, S. D., & Choi, S. B.(2013), Middle-level managers'

perception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their innovative work behaviors in SMEs, *KAHRM*, 20(2), 27-54.

Cheong, Y. H., & Ha, K. S.(2012),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OREADIMA*, 15(4), 41-53.

Choi, Y. L.(2012),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Choi, J. Y., & Jeong, H. J.(2008), A Study On Effect Of Management Education To Entrepreneurship Improvement, *KAHRM*, 15(3), 213-230.

Chung, S.(2008), *Business Venturing for wealth creation*, Seoul:Bakyoungsa.

Clark, B. W., Charles, H., & Harnish, V. C.(1984), Do courses in entrepreneurship aid i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26-31.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Ertuna, Z. I., & Gurel, E.(2011), The moderating role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Training*, 53(5), 387-402.

Fayolle, A.(2005), Evalu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havior performing or intention increa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1), 89-98.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ia Aplicada*, 24(2), 509-523.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_\_\_\_\_ (1987),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5-28.

Ha, K. S.(2009), *A study on the cost of entrepreneur's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te thesis, Hanyang University.

Hisrich, R. D., & Brush, C. D.(1986), *The woman entrepreneur: Starting, managing, and financing a successful new business*, London: Lexington Books.

Hornsby, J. M., Naffziger, D. W., Kuratko, D. F., & Montagno, R. V.(1993), An interactive model of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2), 29-37.

Jung, D. S.(2012),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ra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7(6), 373-394.

Jeong, Y. W., & Bahn, S. S.(2008),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3(1), 45-67.

- Jo, Y. J.(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97-208.
- Kao, J. J.(1989), *Entrepreneurship, Creativity and Organization: Text, Cases, and Reading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Kickul, J., Wilson, F., Marlino, D., & Barbosa, S.(2008), Are misalignments of perceptions and self-efficacy causing gender gap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our nation's teen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321-350.
- Kim, S. S.(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H. R.(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 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applying the big five factors model and the self-leadership theory,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393-2420.
- Kim, S. S., & Yoon, M. S.(2012), Trend and meta-analysis for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its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77-106.
- Kim, S. H., & Lee, J. H.(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Public sec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91-99.
- Kim, Y. M.(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SINESS MANAGEMENT REVIEW*, 47(1), 133-149.
- Kim, Y. S.(2011),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Korean Career Officers Expected for Retir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s*,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 Kirzner, I. 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Knowles, M. S.(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2nd ed.)*, New York: Cambridge Books.
- Lee, I., & You, Y.(2012), The Study on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and Conation on the Consultant' Entrepreneurship and Competencie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5), 89-103.
- Lee, J. H., & Bian, G. X.(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2011(3), 37-45.
- Lee, J. W.(2008), *Entrepreneurship & Venture Start-up*, Gyeonggi: Beobmoonsa.
- Lee, L., Wong, P. K., Foo, M. D., & Leung, A.(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1), 124-136.
- Lee, M., & Kim, A.(2008),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57-174.
- Lew, K. H.(2009),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based on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 Extrinsic Motivation on a Creative Persona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for Creativity Education*, 9(2), 69-88.
- Manning, K., Bielely, S., & Norburn, D.(1989), Developing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68-76.
- Merriam, S. B., Caffarella, R. S., & Baumgartner, L. M.(2007),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3r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Miller, D.(1983), The correlati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ses, L. V.(1966), *Human Actions: A Treatise on Economics*, Fox and Wilkes.
- Mitra, J., & Matlay, H.(2004), Entrepreneuri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essons from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18(1), 53-69.
- Moon, T. H.(2013), Relations among Preliminary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ocial Intelligence, Self-Determination, and Self-Efficacy, *The Korean Society for Children Education*, 22(4), 131-145.
- Nam, J. M, Kim, S, H., & Bang, N. S.(2014), *Entrepreneurship & Start-up*, Seoul: Booknet.
- Oh, S, H.(2014),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Doctorate thesis, Hoseo University.
- Oosterbeek, H., Van Praag, M., & Ijsselstein, A.(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otiv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4(3), 442-454.
- Pickle, H. B., & Abrahamson, R. L.(1990), *Small Business Management*, Wiley, New York, NY.
- Raposo, M., Paco, A., & Ferreira, J.(2008), Entrepreneur's profile: a taxonomy of attributes and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2), 405-18.
- Ries, E.(2011), *The Lean Startup: How Today's Entrepreneurs Use Continuous Innovation to Create Radically Successful Businesses*, Crown Publishing.
- Robinson, P. B., Stimpson, D. V., Huefner, J. C., & Hunt, H. K.(1991), An attitude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 Practice*, 15(4), 13-31.
- Rodrigues, R. G., Dinis, A., Paco, A., Ferreira, J., & Raposo, M.(2012), The effect of an entrepreneurial training programme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intention of secondary students, in Burger-Helmchen, T. (Ed.), *Entrepreneurship - Born, Made and Educated, InTech*, Rijeka, 77-92.
- Podsakoff, P. M., &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Ryan, R. M.(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461.
- Ryan, R. M., & Connell, J. P.(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hapiro, A., & Sokol, L.(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H. Vesper(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
- Shin, H. S.(2013), *The effect of food service and cooking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pirits and restaurant foundation*, Master's degree thesis, Sejong University.
- Shin, H. S. & Ahn, Y. Y.(2015), The Influence of Food Servi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ived by Pre-Entrepreneur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8(2), 433-452.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olesvik, M., Westhead, P., & Matlay, H.(2014), Cultur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 Training*, 56(8/9), 680-696.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s, Irwin/McGraw-Hill, Boston, MA.
- Veciana, J. M., Alponse, M., & Urband,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 Small Bus. Enterp. Dev.*, 15(4),752-774.
- Yoon, B. J.(2012a), *The effects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 Yoo, B. H.(2013), The effect of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rinsic motivation on the possibility of start-up succ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0), 2669-2690.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Yoon, N. S.(2012b),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im, Sung Hwan\*  
Bok, Kyoung Soo\*\*  
Park, Jae Choon\*\*\*

### Abstract

Overall, college students tend to be immersed in the relatively safe employment, such as civil servants or public sector than start one's own business due to the lack of entrepreneurial spirit which made the great success in order to take the risk and innovative challenge. In this study, relationship between pre-founder of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s are to be determined.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order to make pre-founder various ways of career decision beside employment. Therefore start-up training courses was verified by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are first,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Efficacy)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cond,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Efficacy)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Third, entrepreneurship of the pre-founder mad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urth, entrepreneurship was carried out a ful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Pre-founder group who have tak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hav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igh self-determination(Autonomy, Competence, Relation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especially pre-founders, in order to improve the willingnes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highly motivated intrinsic motivation is needed to ensure the student's self-determin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t looks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autonomy, competence, efficacy improvement.

*Key Words: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 Ph.D., Employment & Labor Training Institute, ksh0828@hanmail.net

\*\* Doctoral Candidate, Dankook University, bestbok@naver.com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kplofl@hanmail.net